

## 청소년 돌봄역량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이지선\* · 최새은\*\*†

\*논산여자고등학교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 부교수

---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cale of Care Competence for Adolescent

Lee, Jisun\* · Choi, Saeun\*\*†

*\*Teacher, Nonsan Girls' High School*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conceptualize care competences for adolescents and to develop a valid measurement tool based on this conceptualization. The primary aim is to establish a solid foundation for effective communication in teaching care competences within the domai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o achieve this, a comprehensive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was conducted, and consultations with experts were undertaken to assess content and criterion-related validity. Furthermore,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were performed. The findings from these analyses resulted in a set of 34 items, which were categorized into five distinctive factors representing care competences in adolescents. These factors encompassed four items of care thinking, seven items of care emotion, six items of care behavior, seven items of self-care and ten items of community-care. Additionally, a reliability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model, confirming the stability and consistency of the five factor structure and the 34 item scale, which assess care competences in adolescents.

Key words: 돌봄(care), 돌봄역량(care competence), 역량(competency), 측정도구(scale)

---

† 교신저자: Choi, Saeun,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buk, Republic of Korea  
Tel: +82-43-230-3734 Fax: +82-43-231-4087, E-mail: saeun@knue.ac.kr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돌봄은 더 이상 간호나 사회복지 영역만의 논의 주제가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필요한 개념이다(Kim et al., 2014).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져야 할 미래 인간상과 가장 관련이 높은 단어로 ‘배려’를 떠올릴 만큼(Ministry of Education, 2021) 돌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정교과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내용체계에 ‘돌봄’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정교과교육의 성격 영역에서 ‘배려와 돌봄을 통해 건강한 상호작용과 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가정교과에서 돌봄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개념화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가정교과에서의 돌봄 관련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Wang과 Kim(2011)은 2007 개정 교육과정 가정교과 내용을 대상으로 감사와 돌봄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하였으며, Lee와 Yoo(2014a; 2014b)은 교육철학에서 돌봄이론을 주장한 Noddings(2003)의 행복 교육 활성화 요소를 가정교과교육 내용에서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자의 연구는 돌봄을 가정교과교육의 중점 가치로 상정하고, 돌봄은 ‘생각을 행위로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가정교과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가정교과교육에서 돌봄을 개념화하기보다는 돌봄을 인성교육의 요소 중 하나로서 정의하고 교과의 내용을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자의 연구는 돌봄이론의 대표 철학자인 Noddings(2003)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돌봄이론 보다는 Noddings(2003)의 ‘행복’ 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Wang(2016)은 가정교과교육은 미래교육의 요구를 담보할 수 있는 교과로서 행복, 돌봄 개념이 학생의 정서·사회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돌봄이 건강한 관계형성능력과 좋은 삶을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 가정교과에서 돌봄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와 돌봄을 중심으로 한 교육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어떠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념을 구성

하는 구인(construct)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Tak, 2021). 구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즉, 측정도구 개발 과정을 통해 돌봄역량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구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정의와 구성요인이 도출된다면 돌봄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이나 교육과정 개발 시, 연구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Kim & Yang, 2016). 또한 교육과정 시행, 수업 프로그램 실시 결과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측정의 일반적인 목적은 의사소통의 모호성과 막연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Park, 2006). 돌봄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Coates, 2002). 그러므로 측정도구 개발을 통해 모호성과 막연성을 최소화하면 돌봄을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청소년의 관계 발달에 대한 이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 제공,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확인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교과에서 제공하는 돌봄과 관련된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방법은 교육적 효과가 덜 했는지와 같은 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기반의 연구 결과 축적은 관련 후속 연구 활성화의 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측정도구 개발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가정교과에서 돌봄은 역량관점에서 접근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돌봄이론 학자인 Noddings(2013)는 돌봄을 개인이 지닌 정의적인 성격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키우게 되는 능력으로 본다. 돌봄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 본래의 인격적 성향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다(Kam, 2014), 돌봄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학습이 가능한 개념이다(Cho & Ju, 2013). 돌봄이 역량으로서 학습이 가능하다면 학습결과도 측정 가능해야 한다. 현장의 교사들은 수업을 통한 학생의 역량 증진 정도가 궁급하지만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적당한 측정도구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해 현장에서는 역량 중심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Moon et al., 2021). 체육교과에서는 현장 교사들의 역량 중심 수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이해를 돕고자 학교체육정서척도(Kim, 2017)나 체육수업심리적척도(Moon et al., 2021)를 개발하였다. 이처럼 가정교과에서 실행하는 역량 중심 수업의 구체적인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가정교과에서 개발된 역량 측정도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가정교과에서 개발된 학생의 역량측정을 위해 개발된 도구는 인성 측정도구

(Baek, 2015), 관계형성역량 측정도구(Yu, 2019)가 있다. 두 측정도구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도구들은 가정교과에서 진행된 측정도구 개발의 초기 연구로서 가정교과교육에서의 측정도구 개발 연구 출발의 의의를 갖는다. 다만 두 측정도구는 모두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고 가정교과의 성격을 반영한 돌봄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연구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가정교과의 성격을 반영한 청소년의 돌봄역량을 개념화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돌봄이 가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의 특징을 모두 포함한 돌봄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청소년 돌봄역량의 구성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 청소년 돌봄역량 측정도구의 문항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돌봄의 정의

돌봄에 대한 연구의 기초적 토대를 형성한 학자는 Mayeroff이다. Mayeroff(1990)은 돌봄이란 돌봄 받는 자가 성장하고 스스로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 예로 부모의 자녀 돌봄, 교사의 학생 돌봄, 의사의 환자 돌봄을 제시한다. 특히 Mayeroff는 돌봄의 과정을 통해 돌봄 수혜자(예: 학생, 환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제공자(예: 교사, 의사) 또한 자신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음에 돌봄의 가치를 부여하였다. 즉, 돌봄의 의미는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간에 상호의존성과 성장에 있음을 설명한다.

돌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82년 Carol Gilligan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Gilligan은 1982년 ‘다른 목소리로(In

a difference voice)’라는 저서를 통해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여성관점의 돌봄윤리를 주장한다. Gilligan(1997)은 돌봄을 정의(正義)윤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간 사이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헌신으로 정의한다.

돌봄을 더욱 체계화하고 정교화한 학자는 미국의 교육자이자 철학자인 Nel Noddings이다. Noddings(2013)는 돌봄이란 돌봄 수혜자와 제공자의 상호성으로 완수되는 관계로 정의한다. Noddings는 직접적인 돌봄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도 어떤 대상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초조해하고, 근심하는 것을 돌봄의 시작으로 본다. 나아가 돌봄은 돌봄 대상의 입장과 관심을 이해하는 것이며, 돌봄 대상의 복지나 건강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것도 돌봄의 형태로 보았다(Park, 1999). Noddings와 달리 Parker와 Dittmann(1971)는 돌봄 제공자에 의해 행해지는 직접적인 행동만을 돌봄으로 정의한다. Noddings가 주장했던 누군가에 대한 걱정이나, 관심, 염려의 동기적인 측면의 태도는 돌봄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인이나 환자의 식사를 돕거나, 목욕시켜주는 직접적인 간호 행동만을 돌봄의 예로 들었다. Graham(1995)은 돌봄 행동에 태도와 가치를 결합하여 정의한다. 돌봄이란 다른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동기나 태도로 시작하여 실제 그 사람을 돌보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결합된 형태인 것이다. Tronto와 Fisher(1990)도 Graham과 동일하게 돌봄의 태도적인 면과 행동적인 면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특히 Tronto는 사적 문제로 치부된 돌봄과 공적 문제로 칭송받는 민주주의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Engster(2007), Held(2017), Kittay(2016)도 개인적 영역으로 이해되었던 돌봄을 공적 영역으로 확장시키며 Tronto와 그 맥을 같이한다.

Engster(2007)는 돌봄을 타인을 돕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Kittay(2016)는 돌봄을 인간됨으로 정의하고 돌봄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한다. 타인과의 돌봄관계 없이는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없음을 설명한다. Held(2017)도 돌봄을 인간의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삶의 특징으로 보고 돌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인간은 돌봄 의존을 경험하며 돌봄 요구에 응답하는 돌봄 자체가 도덕적인 것이다. 또 돌봄과 관련하여 감정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공감, 동감, 민감성, 응답성 등의 감정은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해서 절대 무시해

서는 안된다는 점을 논한다.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는 가족과 우애의 '사적' 영역에 가치를 부여한다. 외부의 공적 세계의 일만을 높게 평가하는 태세를 비판하고, 일상 생활에 가치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제공자이자 동시에 수혜자인 인간을 관계적이며 상호존존적 존재로 바라본다. 이러한 돌봄 특징을 바탕으로 Held(2006)는 '실천으로서의 돌봄'을 강조한다. 돌봄은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라 돌봄의 핵심은 실천이라고 설명한다. 실천으로서의 돌봄이란,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에 초점을 둔 돌봄활동과 그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재실행의 과정이다. 이를테면 돌봄관계가 일방적이고 지배적이라면 이를 평가하고 개선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돌봄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하면서 돌봄을 실천으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실천은 가정교과 철학의 '실천'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돌봄관련 연구에서는 학자에 따라 돌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Lim(2012)은 'care'는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느낌과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임을 설명하였다. 돌봄이란, 돌봄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돌봄 제공자의 심리적, 정서적 태도나 성향, 배려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호와 복지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즉, 돌봄을 제공하는 자와 돌봄 받는 자의 돌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반면 Lee(2008)는 '돌봄', '배려', '보살핌' 단어 자체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Tronto(1993)의 주장에 근거하여 돌봄을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Kong(2017)은 돌봄을 정서나 행동의 단편적인 면으로 보기보다는 철학적 관점에 근거해 돌봄을 정의하였다. 돌봄은 인간 삶의 기본 방식으로서 인간관계 속에 배태되어 있는 돌봄의 맥락을 존재론적·현상학적·해석학적·윤리적 차원에서 탐색하였다.

돌봄에 대한 현장연구를 진행한 Lim(2016)은 돌봄을 학교 밖 돌봄과 학교 내 돌봄으로 유형화하여 돌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Gilligan(1997), Mayeroff(1990), Noddings(2013)의 정의를 바탕으로 돌봄을 정의하여 돌봄이란, "자신과 타인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사람,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의 상호성으로 완수되는 관계,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Lim, 2016, p. 12)으로 정의하였다.

돌봄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세 가지 측면에 고른 관심을 두고 진행한 연구로는 Park(1999)의 도덕교육에서의 돌봄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Park(1999)은 돌봄이 기본적으로 전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고,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각 측면에서의 돌봄에 대한 특성을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도 care에 대한 정의는 학문 분야나 연구 관점에서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공통으로 나타나는 정의는 '관심을 갖고 어떤 행동을 행하는 실천'이었다. 또한 연구자의 관점이나 학문 분야에 따라 care를 돌봄, 배려, 보살핌 등으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었다. 배려의 사전적 의미는 '도와주거나 보살피 주려고 마음을 씀'으로 다른 대상을 돕기 위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돌봄은 태도와 행동 그리고 반성까지 모두 포함한 단어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care를 돌봄이라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돌봄에 대한 학자별 정의는 <Table 1>과 같다.

## 2. 청소년 역량과 돌봄

역량은 인재 선발을 위한 직업 분야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으나(Spencer & Spencer, 1998) 최근 역량기반 교육과정, 역량중심교육 등 교육에서 역량이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학교교육에서는 역량을 학습자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가 모두 요구되는 복합 개념으로 정의한다(Paik & Ohn, 2018). OECD(2018)는 청소년에게 역량이란, 앞으로의 불확실한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적용하여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OECD(2018) Education 2030 프로젝트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역량교육에서 정의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바탕으로 돌봄이 가진 특징을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Table 2).

첫째, 돌봄의 '인지적 영역'과 역량교육의 '지식'이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돌봄의 인지적 영역은 상대방의 처지, 상황,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하는 타인의 관점 조망능력으로 돌봄의 대상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과 이해력이라고 설명하였다(Cho & Ju, 2013).

Park(2011)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성교육은 정의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인성의 인지적 측면으로서 배려적 사고의 발달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배려

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와 함께 다차원적 사고를 구성하는 인지적 사고의 한 종류로서 Lipman(2003)에 의해 제시되었다(Park, 2011). 배려적 사고는 돌봄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돌봄의 인지적 측면에 해당한다(Kim

**Table 1.**  
*Definitions of Care*

Researcher	Definition
Mayeroff(1990)	•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Gilligan(1997)	• 돌봄이란 인간 사이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헌신
Noddings(2013)	• 타인의 실제 안으로 감정적 · 도덕적으로 전념함 • 정신적으로 신경쓰이는 상태
Parker & Dittmann(1971)	•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보살펴 주는 실질적인 행동
Graham(1995)	• Parker의 정의를 확대하여 돌봄은 활동이나 감정 중, 특정 측면에서만 정의할 수 없음을 설명
Tronto(2014)	• 돌봄 민주주의를 정의 • 우리 모두는 자신과 타인을 돌보는 직접적이고 친밀한 돌봄의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
Engster(2007)	• 생물학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직접 타인을 돕거나, 타고난 역량을 발달 · 유지하도록 돕거나, 불필요한 고통, 고충을 줄일 수 있게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필요에 응답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을 돌봄으로 정의
Kittay(2016)	•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돌봄관계가 필수적
Held(2017)	• 돌봄을 실천으로 정의 • 돌봄은 정치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있음 • 돌봄은 인간의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삶의 특징
Lee(2008)	• 돌봄은 실제적 행동
Lim(2012)	• 돌봄 대상에게 집중하고, 그 대상을 도와주고 싶은 감정 혹은 정서
Lim(2016)	• 자신과 타인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사람,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의 상호성으로 완수되는 관계,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Park(1999)	• 돌봄의 전인적 측면 강조하여 정의함. 태도나 동기와 더불어 행동적, 정의적, 인지적 영역에 관심 • 정의적 영역: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돌봄을 받는 사람의 응답을 통해서 기뻐하고 안도감을 느끼는 것 • 인지적 영역: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필요나 복지,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나 이해, 주의 • 행동적 영역: 돌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위로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보살펴 주고자 하는 태도나 동기적인 측면까지 모두 포함

**Table 2.**  
*Domains of Care*

	contents
인지적 영역	• 상대방의 처지, 상황,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하는 정도 •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필요한 적절한 지식과 이해력, 주의력 • 확인, 관계성 인식, 타인심정고려, 조망수용능력, 타인고려 등
정의적 영역	• 상대방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 •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느끼고 염려하는 공감, 감정이입, 상대방에 대한 필요, 감정 등에 마음 쓰는 것 • 공감, 민감성, 책임, 애착, 측은지심, 인(仁), 민감
행동적 영역	•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이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 상대방과 접촉하여 이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거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적 측면 • 도움, 실천, 응답, 몰입, 수용, 사랑의 노동, 양보, 긍정적 반응

at et., 2014). 따라서 인지적 영역에서의 돌봄은 돌봄실천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과 돌봄 대상에 대한 이해에 해당한다. Held(2017)도 돌봄에서 인지적 영역이 중요함을 설명한다. 잘못된 지식을 기반으로 행한 돌봄은 돌봄 실천자의 의도와 달리 돌봄을 받는 수혜자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돌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에 대해 오직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거나, 그릇된 선입견이나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돌봄을 실천한다면 오히려 고통이나 상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돌봄의 ‘정의적 영역’과 역량교육의 ‘가치와 태도’가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Cho와 Ju(2013)는 상대방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돌봄의 정의적 영역으로 보았다. Kim(2005)도 돌봄을 정서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실천으로 보았다. 즉, 신경 쓰임, 걱정, 마음 쓰임, 공감 등 상대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돌봄의 정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Held(2017)는 실천적 동기를 돌봄의 정의적 특징으로 해석한다. 어떤 대상에 대해 신경이나 마음이 쓰여서 그 대상을 위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돌봄이 갖는 정의적 특징으로 본다.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는 태도와 가치를 웰빙 실현을 위한 학생의 판단, 선택, 행동의 근원이 되는 원리이자 신념으로 보았다. 행동을 이끌어 내는 원인, 근원, 동기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돌봄의 정의적 영역과 태도 및 가치는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돌봄의 ‘행동적 영역’과 역량교육의 ‘기능’이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돌봄의 행동적 영역은 타인을 위한 직접 돌봄 행동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역량교육에서의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기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돌봄의 행동적 영역은 돌봄 대상에게 긍정적 반응을 하거나 돌봄의 대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돌봄 제공자가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즉, 돌봄의 행동적 영역에는 실질적인 돌봄 노동도 포함된다(Held, 2017; Joseph et al., 2009; Kittay, 2016; Noddings, 2013). 하지만 돌봄 노동은 단순하고 실질적인 노동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Held, 2017; Kittay, 2016).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봄 노동이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를 바탕으로 돌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봄실천을 행하는 것을 상호돌봄역량으로 설명한다(Held, 2017).

Ko(2004)는 돌봄을 감정이나 정서, 느낌 등에 해당하는 정서적 측면 또는 누군가의 신체적 불편함을 도와주는 행동적 측면에만 초점을 둔 연구(Cancian & Olicker, 2000)를 비판하며, 돌봄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서 돌봄의 요소를 분석하였다. 먼저 돌봄의 인지적 측면은 배려적 사고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배려적 사고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지, 어떤 돌봄이 적절할지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고 과정이다. 돌봄 실천은 논리와 추론이 사용되어야 한다(Noddings, 2002). 돌봄은 항상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맥락과 대상에 따라 적합한 행동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지적인 활동이다. 이때 사용되는 지식이 바로 ‘실천적 지혜(phronesis)’라고 설명하였다(Ko, 2004). Kong(2017)도 상황에 맞는 돌봄실천을 위해서는 일반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지적 사고의 과정을 돌봄의 ‘실천적 지식’이라고 하였다. 실천적 지식이 이론적인 명제적 지식과 다른 점은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쌓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인지적 측면을 배제하고는 진정한 돌봄의 실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상과의 관계에서 상황에 따라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한 돌봄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돌봄의 정의적 측면은 정서의 중요성 강조, 돌봄 대상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Ko(2004)는 돌봄 받은 기억, 돌봄을 행한 기억을 바탕으로 돌봄의 정서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비록 돌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결국 돌봄을 실천해야 한다는 태도와 가치를 갖는 ‘정서적 습관’을 돌봄의 정의적 측면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돌봄의 행동적 측면은 ‘실행(practice)’으로 정의하였다. 즉, 돌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돌봄에 대한 마음가짐도 있지만 실제로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돌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돌봄은 인지적 영역, 행동적 영역, 정의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돌봄 관련 선행연구(Cho & Ju, 2013; Held, 2017; Kam, 2014; Kittay, 2016; Ko, 2004; Park, 2011; Tronto, 2014)에서도 돌봄의 이론적 기반은 윤리철학이지만 돌봄이 정의적 영역에 매몰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돌봄이 지니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확인

을 통해 돌봄이 역량으로서 총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돌봄은 돌봄역량으로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실천 개념으로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돌봄역량 증진을 위한 돌봄교육을 실시할 때, 돌봄역량을 다루는 구체적인 교육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Noddings(2002)의 돌봄이론에 기반하여 살펴보았다. Noddings(2002)는 인간을 관계적 자아로 보고, 자기를 중심으로 자신과 관계를 맺는 대상에 대한 돌봄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돌봄교육의 주제는 자아, 친밀한 사람, 낯선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들, 동물·식물·땅, 인간이 만든 세상, 사상의 6가지로 제시하고 돌봄은 정서적이거나 개인의 감정적인 특성이 아니라 능력으로 교육되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한다.

돌봄이 역량으로서 갖는 특성과 Noddings(2002)의 돌봄이론을 살펴본 결과, 돌봄역량 증진을 위한 돌봄의 대상은 나(자기), 타인, 공동체 3가지로 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아에 대한 돌봄은 돌봄의 대상이 '자기'이다. 친밀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은 돌봄의 대상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친밀한 타인의 예로는 친구나 가족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낯선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돌봄, 동물·식물·땅에 대한 돌봄, 인간이 만든 세상에 대한 돌봄, 사상에 대한 돌봄은 돌봄의 대상이 세상 전체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돌봄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동체는 주변에 있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타인보다 더 넓은 의미의 타인으로서 포괄적으로 지역사회, 단체, 환경, 현상까지 포함될 수 있다.

### 3. 기존 돌봄 측정도구의 한계

교육학에서는 유아용(Kim, 2015; Lee, 2007), 초등학교(Lee, 2020; Lee & Kim, 2009), 청소년(Cho & Ju, 2013; Joseph et al., 2009; Kim, 2005; Park, 2011), 성인(Kam, 2014; Kim et al., 2014)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측정도구가 있다(Table 3). 교육학에서 개발된 기존의 돌봄 측정도구는 주로 윤리적이고, 정의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이는 돌봄 용어의 출발이 Gilligan(1997)의 돌봄윤리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Gilligan과 Noddings 돌봄 이론이 정서적·정의적 측면

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돌봄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척도(Lee, 2007; Park, 2011)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개발된 두 척도 모두 Lipman의 배려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여 인지적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Kim et al., 2014). 위의 두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Cho와 Ju(2013)는 돌봄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와 구성 요소를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대한 척도 문항을 개발하였으나 돌봄의 초점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만 두고 개발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Lee와 Kim(2009)의 초등학교용 배려척도나 Lee(2020)의 후속 연구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영역으로 구성 요인을 구성하였으나 돌봄의 대상을 타인과 자신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돌봄의 가치를 바탕으로 확장된 의미를 정의하고 돌봄의 대상을 공동체로 확장되는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Kong, 2017) 자신, 타인, 공동체에 대한 돌봄의 교육적 가치와 내용 요소를 잘 반영하는 측정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Noddings를 이론적 근거로 유아의 배려 행동 척도를 개발한 Kim(2015)의 연구는 돌봄의 대상을 자신으로부터 모든 세상과 아이디어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보고 척도 요인이 구성되었으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측정도구인 만큼 측정 방법이 자기보고식이 아닌 교사가 행동을 관찰하여 평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나 정서를 유아의 돌봄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돌봄척도의 경우 최근 새롭게 개발되거나 기존 척도가 수정된 경우는 없었다. 돌봄을 측정하는 척도는 주로 유아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돌봄 척도는 돌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돌봄을 역량으로써 개념화하고 돌봄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돌봄을 역량으로 개념화하고 돌봄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교육학 분야에서 개발되어 있는 돌봄 측정도구는 주로 윤리교육과 윤리철학에 기반하여 개발되었다. 하지만 돌봄은 윤리학에서만 다뤄질 수 있는 주제가 아니므로 청소년의 실제 삶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돌봄역량 측정도구를 개발을 하고자 한다.

**Table 3.**  
*The Scales of Care*

도구명	대상	측정방식	척도 구성
Scale of young children's caring thinking (Lee, 2007)	유아	교사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화를 사용하여 학습활동의 결과로써 유아들의 배려적 사고 변화 측정</li> <li>• Lipman의 배려적 사고 5개(자기이해, 자기존중, 자기수용, 자기조절, 자기 주도성) 요인으로 구성</li> </ul>
Caring behaviors scale for young children (Kim, 2015)	유아	교사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ddings의 돌봄이론을 기반으로 개발</li> <li>• 4요인(자기에 대한 배려행동, 친밀한 타인에 대한 배려행동, 자연 및 환경에 대한 배려행동, 다양성에 대한 존중)</li> <li>• 35문항</li> </ul>
Care scal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e & Kim, 2009)	초등학생	자기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요인(정서적 영역의 민감, 인지적 영역의 타인고려, 행동적 영역의 긍정적 반응)</li> <li>• 27문항</li> </ul>
Scale of Self-Caring(SSC) (Lee, 2020)	초등학생	자기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려는 타인배려와 자기배려로 구성되며 자기배려의 중요성을 강조</li> <li>• 푸코의 관점과 페미니즘적 관점을 절충하여 자기배려의 구성 요인 설정</li> <li>• 5요인(자기이해, 자기존중, 자기수용, 자기조절, 자기 주도성), 25문항</li> </ul>
Middle school students' sense of consideration (Kim, 2005)	중학생	자기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려심이란 염려와 걱정, 타인의 입장과 관심고려, 책임감, 양보로 정의함.</li> <li>• 선행연구를 통해 배려심 관련 문항 200문항을 제작하여 요인분석 실시</li> <li>• 3요인(타인 심정 고려, 양보, 염려)</li> <li>• 33문항</li> </ul>
The caring thinking scale for youth (Park, 2011)	청소년	자기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pman의 배려적 사고 개념 요소를 근거하여 개발</li> <li>• 20문항</li> </ul>
The Caring Test for Juvenile (Cho & Ju, 2013)	청소년	자기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ddings, Gilligan, Fisher&amp;Tronto, Graham의 돌봄이론 및 기존 선행도구를 바탕으로 척도 개발</li> <li>• 3요인(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20문항</li> </ul>
Caring Scale Items (Kim et al., 2014)	성인	자기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려를 배려심, 배려 태도, 배려 능력(리더십)의 종합으로 정의. 특히, 배려를 리더십 이론의 핵심요소로 봄.</li> <li>• Noddings, Lipman 등의 돌봄 개념 요소와 리더십 이론을 바탕으로 척도 개발</li> <li>• 7개 요인(공감, 배움, 책임, 인격, 비지시적 태도, 관계 능력, 존경), 22문항</li> </ul>
Evaluating Care Practices of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Kam, 2014)	초등학교교장	학생평가 교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려는 리더십에서 핵심이 되는 특성으로 파악</li> <li>• 배려 철학과 선행연구, 리더십 이론에 나타난 배려성 평가의 구성 요소 추출</li> <li>• 4요인(배려의 인지, 행동, 공감, 순환)</li> <li>• 학생용 37문항, 교사용 55문항</li> </ul>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aring activities checklist (MACA-YC18) (Joseph et al., 2009)	아동-청소년	자기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요인(가사일, 가정관리, 개인적돌봄, 정서적돌봄, 형제자매 돌봄, 재정적/실제적 돌봄),</li> <li>• 18문항</li> </ul>
Positive and negative outcomes of caring questionnaire (PANOC-YC20) (Joseph et al., 2009)	아동-청소년	자기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려와 관련된 심리학적 결과를 측정</li> <li>• 긍정적, 부정적 2가지 수준으로만 구성, 20문항</li> </ul>



### III 연구방법

#### 1. 연구절차 및 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돌봄역량에 대한 개념과 구인을 탐색하여 타당도 높은 청소년의 돌봄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단계별 연구대상자 선정과 진행과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Figure 1).

청소년이 좋은 삶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돌봄이 교육되고 측정될 수 있도록,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돌봄에 대한 개념과 구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돌봄역량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영역을 구분하여 청소년 돌봄역량을 구조화하였다. 이에 대해 돌봄 관련 정책이나 전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 7인(교수6, 연구위원 1)에게 청소년의 돌봄역량 개념 구조화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돌봄역량은 자신과 타인을 돌볼 줄 알며 나아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공동체까지 돌볼 줄 아는 능력으로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으로 구성된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하위 역량은 자기돌봄역량, 타인돌봄역량, 공동체돌봄역량으로 구성된다. 자기돌봄역량이란 건강한 일상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지식, 기능, 태도로 구성된 역량이다. 타인돌봄역량이란 가족, 친구 등을 비롯한 주변 사람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을 돌보는 지식, 기능, 태도로 구성된 역량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돌봄역량이란, 지속가능한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청소년이 자신을 둘러싼 학교와 지역사회를 돌보는 지식, 기능, 태도로 구성된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예비문항 개발을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돌봄 측정도구의 문항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청소년 돌봄역량의 하위 영역 구성요인(자기이해, 자기존중, 자기수용, 자기조절, 자기주도성, 관계적자기, 나의식, 타인의 관점 조망, 공감, 실제적 돌봄행동, 책임, 감사 행동, 협력, 교류, 나눔, 문제해결, 대인관계, 탄력성)을 측정하는 관련 도구의 문항도 함께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돌봄 측정도구 11개(343문항)와 돌봄역량 관련 구성요인을 측정하는 도구 11개(540문항)로 총 22개 측정도구에서 883문항을 산출하였다. 수집한 883개의

문항에서 청소년의 돌봄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의 조작적 정의와 예측되는 구성요인을 고려하여 자기돌봄역량 67문항, 타인돌봄역량 49문항, 공동체돌봄역량 70문항으로 총 186문항을 선정하였다. 186문항에 대한 문항 적합성을 판정하여 타당도 높은 문항을 산출하기 위해 2단계 예비 평정과정을 실시하였다. 예비평정은 가정과교육 교수 1인과 교과교육 박사수료생 4인이 Focus group discussion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기돌봄역량 문항 51개, 타인돌봄역량 문항 31개, 공동체돌봄역량 문항 26개로 총 108문항으로 축소되었다.

선행 과정을 통해 선정된 108개 문항이 청소년의 돌봄역량을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가정과교사, 가정과교육교수로 구성된 현장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108개 문항이 청소년 돌봄역량의 하위 영역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5점 척도상에서 평가하였다. 평정점수 4.5점 미만 문항은 제외하였으며, 평정점수가 4.5점 이상이어도 전문가의 주관식 의견을 분석하여 삭제하거나 수정하였다. 검증 결과 108문항에서 총 33문항이 제외되었으며 내용타당도 검증 의견에 따라 2문항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 77문항이 완성되었다. 내용타당도가 검증된 77문항에 대하여 현직 국어교사 2인이 문법적 오류, 다중 해석 가능성 등에 대하여 문항 가독성 평정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A, B 중학교 재학생 36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 이해도 등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도출된 청소년 돌봄역량 77문항의 하위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단계에서는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10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다음은 모형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준거관련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응답한 310명의 응답자는 제외하고,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440명을 새롭게 수집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응답자 선정은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의 경우 만15세 미만에 해당하여 전문 리서치 기관의 패널로 등록되지 못하는 이유로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응답

**Figure 1.**  
*Procedure of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cale*

단계	내용
문항 개발	<p style="text-align: center;"><b>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과 역량에 대한 개념 정리 및 구성요인 추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조직적 정의 및 구조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돌봄역량 조직적 정의와 구조화</li> <li>• 학계 전문가 7명의 검토를 통해 조직적 정의와 구조화 적합성 확인</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예비문항 개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관련 선행연구를 통한 하위 역량별 예비문항 추출</li> <li>• 186문항 선정(자기돌봄역량 67, 타인돌봄역량 49, 공동체돌봄역량 70)</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예비문항에 대한 예비 평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예비 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명(가정과교육교수 1인, 박사과정 1인, 연구자)이 186문항 검토</li> <li>- 1차 예비 평정을 통해 115문항 선정(자기돌봄역량 52, 타인돌봄역량 36, 공동체돌봄역량 27)</li> </ul> </li> <li>• 2차 예비 평정: FGD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GD에 4명(박사과정 3인, 연구자)이 문항 검토</li> <li>- 108 문항 선정(자기돌봄역량 51, 타인돌봄역량 31, 공동체돌봄역량 26)</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현장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전문가 12명이 예비문항(108개)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li> <li>• 검증 결과 77문항 선정(자기돌봄역량 32, 타인돌봄역량 25, 공동체돌봄역량 20)</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문항 가독성 평정 및 파일럿 조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교사 2명이 77문항에 대한 가독성 평정</li> <li>• 중학교 1-3학년 학생 36명 대상으로 77문항 파일럿 조사 실시</li> </ul>
측정 모형수립	<p style="text-align: center;"><b>1차 본조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중고등학생 310명 대상 조사 실시</li> <li>•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실시</li> <li>• 35문항, 5요인으로 구성된 측정모형 수립</li> </ul>
측정 모형검증	<p style="text-align: center;"><b>2차 본조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중고등학생 440명 대상 조사 실시</li> <li>•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 검증</li> <li>•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li> </ul>
모형 확정	<p style="text-align: center;"><b>청소년의 돌봄역량 최종 모형 확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34문항, 5요인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돌봄역량 모형 확정</li> </ul>

**Table 4.**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FA)*

Categories		Frequency	%
Sex	Male	155	50.00
	Female	155	50.00
Grade	Middle school seniors	77	24.80
	High school freshman	78	25.20
	High school junior	78	25.20
	High school seniors	77	24.80
Total		310	100.00

**Table 5.**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FA)*

Categories		Frequency	%
Sex	Male	220	50.00
	Female	220	50.00
Grade	Middle school seniors	110	25.00
	High school freshman	110	25.00
	High school junior	110	25.00
	High school seniors	110	25.00
Total		440	100.00

방법은 온라인 조사로 실시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온라인 조사는 2022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온라인 조사는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하였다.

**2. 준거관련 측정 도구**

준거관련 타당도 분석을 위한 기존의 측정도구로 배려척도(Kim et al., 2014)를 선정하였다. 본 도구의 구성 요인은 공감, 배움, 비지시적 태도, 관계능력, 책임, 존경, 인격의 7개이며 문항 수는 22개이다.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며, 각 척도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반응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값은 .90이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 돌봄역량의 가설모형 수립**

**1) 문항 분석 및 구형성 검증**

측정도구의 변별도와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검토하여 요인분석 이전에 불필요한 문항을 제거하는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77개 문항의 각 평균과 표준편차, 각 문항 간의 상관계수, 문항-전체 상관(item-total correlation)과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을 구하였으며, 문항 양호도를 위한 문항 제거 기준(Kline, 2013; Tak, 2021)에 따라 총 5문항을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수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치를 확인하였다. KMO 값은 .92로 .90이상의 값은 요인분석에 매우 적합한 보고 기준(Tak, 2021)에 해당하여 수집한 데이터가 요인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Bartlett 검증 결과는  $\chi^2=12428.05$  ( $df=2556$ ), 유의수준  $p<.001$ 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2) 탐색적 요인분석

설문문항으로 사용된 총 77문항에서 문항분석을 통해 삭제된 5문항을 제외하고 총 72문항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중다상관계분석(SMC)에 기초하여 요인수를 추출하는 공통요인모형에서 단일주축분해(principal factoring method)를 사용하였다. 기초구조에 대한 회전방법은 요인들끼리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가정하여 사각회전 방법 중 프로맥스(promax)법을 적용하였다. 최종 요인수를 판단하는 데에는 스크리 그래프(scree plot)와 누적분산비율기준, 요인 구조에 대한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였다.

가장 먼저 고유향(eigenvalue) 1.0 이상의 값을 갖는 요인의 수와 스크리 그래프를 확인하였다. 고유향 1.0 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는 요인8까지로 나타났다(Table 7). 스크리 그래프에서는 요인6부터 그래프의 선이 평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orsuch(as cited in Lee, 2000, p. 44)는 공통요인분석에서는 전체 공통분산의 75-85% 정도가 설명되면 그 다음에 추가되는 요인의 비율이 아주 크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요인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Gorsuch의 기준을 고려해보면 요인7이 기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의 수를 결정할 때는

내용적 고려 사항인 해석가능성도 가정해야 하므로(Lee, 2000) 6요인을 기준으로  $\pm 1$ 요인을 함께 확인하여 가장 적합한 요인수를 찾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5요인에서 7요인 사이에서 각 요인수를 설정하고 요인분석을 한 결과 6요인은 해석가능성에 대한 타당도가 낮았다. 7요인은 최소 3개 이상의 문항이 포함되어야 의미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기준(Lee, 2000, 재인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누적 분산비율과 스크리도표 결과, 측정도구의 해석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5요인 모형을 확정하고 각 요인별로 문항을 추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s)을 확인하여 요인-문항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Kline(2013)이 제안한 기준을 참조하여 요인 부하량이 .40 이하 문항을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교차 부하량(cross loadings)이 .30 이상 문항도 제외시켰다. 문항의 삭제가 진행됨에 따라 공통분(communality)과 요인 부하량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부적절한 문항을 삭제해 나가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총 22문항이 삭제되었다. 최종 문항을 확정하기 전에 다시 각 문항의 공통분(communality)을 확인하여 .30 이하의 문항은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5개 요인 구조 50문항 내에서는 공통분이 .30 이하의 점수를 갖는 문항은 없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요인1에 7개 문항이 요인2에 10개 문항, 요인3에 4개 문항, 요인4에 7개 문항, 요인5에 7개 문항이 적재되어, 요인별 적재 문항 수가 3개 이상이어야 한다(Lee, 2000)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각 요인에 적재된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의 범위는 최소 .42에서 최대 .82로 모든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이었다. 또한, 두 개의 요인에 교차 적재된 문항도 없었다. 각 요인의 설명분산은 요인 1 57.41%, 요인 2 9.83%, 요인 3 6.88%, 요인 4 5.12%, 요인 5 3.61%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체 변량의

Table 6. KMO and Bartlett Test

KMO		.92
Bartlett	$\chi^2$	12428.05
	df	2556.00
	유의도	.000

Table 7. Results for the Extraction of Component Factors

Component	1	2	3	4	5	6	7	8	9	10
Eigenvalues	19.62	4.29	3.28	1.81	1.54	1.24	1.20	1.09	0.98	0.95
% of Variance	46.09	10.08	7.70	4.39	3.62	2.91	2.82	2.57	2.30	2.23
Cumulative(%)	46.09	56.17	63.87	68.26	71.88	74.79	77.61	80.18	82.48	84.72

**Table 8.**  
Result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N=310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신뢰도
50	나는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77					
53	나는 모둠 활동에서 어려워서 잘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6					
49	나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65					
54	나는 모둠 활동에서 맡은 부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낸다.	.54					.80
52	나는 친구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접 도와준다. (예: 가방 들어주기, 특별실 이동)	.44					
57	나는 가족 구성원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직접 보살핀다. (예: 식사도움, 옷갈아입기, 씻기 등)	.44					
65	나는 동물 또는 식물을 잘 돌볼 수 있다.	.43					
73	나는 우리지역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캠페인참여, 서명운동, 청소 등)을 실천한다.		.82				
74	나는 동아리나 청소년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82				
72	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		.78				
67	나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금을 모금한다면 참여하고 싶다.		.67				
75	나는 학교나 학급문제를 해결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62				
69	나는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50				.91
68	나는 평소 우리지역이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49				
66	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44				
60	나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어린 이들을 생각하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3				
71	나는 나에게 직접 도움이 되지 않아도 올바른 일이라면 용기 내서 행동으로 옮긴다.		.42				
42	나는 친구가 슬퍼하고 있으면 위로해준다.			.72			
41	나는 친구가 우울해 보이면 걱정이 된다.			.68			
39	나는 내 친구에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내 기분도 나쁘고 속상하다.			.63			
38	나는 아픈 친구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58			.89
43	나는 친구가 칭찬받을 때 함께 기뻐한다.			.56			
40	나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관심을 갖는다.			.51			
37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의 생각을 존중한다.			.42			
34	나는 친구가 내게 화를 낼 때 왜 화를 내는지 생각해 본다.				.69		
33	나는 어른이 나를 꾸중할 때 왜 꾸중하시는지 생각해 본다.				.57		
35	나는 친구와 싸우고 난 뒤에 친구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본다.				.53		.72
36	나는 다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				.48		

Table 8.  
Continued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신뢰도
27	나는 친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한다.					.69	
25	나는 내가 걱정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					.66	
26	나는 어려운 문제는 혼자보다 친구들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62	
28	나는 폭력 피해에 노출된다면 친구 또는 선생님 또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49	.82
13	나는 내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49	
30	나는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알게 된다.					.45	
12	나는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2	
	고유탈	15.39	2.64	1.85	1.37	.97	
	분산(%)	57.41	9.83	6.88	5.12	3.61	.94
	누적(%)	57.41	67.24	74.12	79.23	82.84	

82.84%를 설명하는 5개 요인 35문항의 청소년의 돌봄역량 측정도구가 확정되었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72~.91로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94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5개 요인에 포함된 문항이 적절하게 요인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요인명 설정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의 의미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요인명을 설정하였다. 요인1은 나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친구, 가족 등 나와 가까운 타인을 위해 실제 돌봄 행동을 취하는 행동적 영역에 해당하는 ‘타인돌봄 행동’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요인2는 공동체돌봄을 실천하는 역량으로 개념화하고 ‘공동체돌봄’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에 묶인 문항에 나타난 돌봄의 대상은 이론적 고찰에서 공동체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와 환경으로 예측되었던 문항들로만 구성되었다. 또한, 돌봄의 내용이 행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이 모두 하나의 요인에 묶인 것으로 나타났기에 요인명을 ‘공동체돌봄’으로 명명하였다.

요인3의 문항들은 돌봄의 대상은 가까운 타인이며, 돌봄의 내용은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인3을 ‘타인 돌봄 정서’로 명명하였다. 요인3에 묶인 돌봄의 대상은 가까운 타인 중에서도 ‘친구’로 나타났으며, 요인3에 적재된 문항들의 담고 있는 돌봄의 내용은 교우관계에서 느끼는 ‘공감’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내용이었다. 따라서 요인3은 타인돌봄역량에 해당하는 ‘타인돌봄 정서’로 명명하였다.

요인4는 총 4개의 문항이 적재되었으며 모든 문항이 타인에 대한 관점 조망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돌봄의 대상은 타인이며 돌봄의 내용은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여 요인4는 ‘타인돌봄 사고’로 명명하였다.

요인5의 요인명은 ‘자기돌봄’으로 명명하였다. 요인5에 적재된 문항의 돌봄 대상이 모두 자기 자신이며, 돌봄의 내용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5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인지하고 돌보는 자기돌봄의 실천으로 개념화하고 ‘자기돌봄’으로 명명하였다.

2. 청소년의 돌봄역량의 가설모형 검증

1) 기술통계 분석 및 신뢰도 분석

모형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먼저 본 측정도구의 요인 및 요인별 각 측정문항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값은 3.12-4.23, 표준편차는 .79에서 1.16으로 나타났다. 표준정규분포의 경우 평균(mean),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가 모두 0이므로, 왜도와 첨도가 0에 가까울수록 정상분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Kline(2013)은 왜도의 절대값 3이하, 첨도의 절대값 10이하일 경우에는 정규성 가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모형의 결과 분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로 왜도 절대값 2이하, 첨도 절대값 7이하를 제시한다(Kim, 2016). 따라서 각 문항점수 분포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정규성 가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별 상관분석 결과 5개 하위요인과 총점과의 상관은 .74에서 .87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5개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49에서 .67로 적절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돌봄역량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동일 개념과 관련이 높으며 구인들이 개별적인 별개의 개념을 갖되 요인간에도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정된 청소년 돌봄역량 측정도구의 문항들이 5개 요인구조를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측정변인들의 각 잠재변인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는 요인1에 해당하는 문항 7( $\lambda=42$ )를 제외하고 모두 .53이상으로 나타났다. Kline(2013)은 표준화 경로계수가 너무 작으면 그 측정변수는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로서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고, .70이상이면 적합한

측정변수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35문항 중 표준화 경로계수 .70이상인 문항은 총 15문항으로 나타났다(Hair et al., 2014). Kim(2016)은 Kline(2013)이 제시한 .70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Hair 외(2014)는 표준화 경로계수 .50 이상이면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보며, Wang과 Wang(2019)은 표준화 경로계수 .40 이상을 타당도 확보 기준으로 제시한다.

돌봄행동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 7(나는 동물 또는 식물을 잘 돌볼 수 있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415로 Wang과 Wang(2019)의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문항7의 SMC값을 확인한 결과 .173으로 문항 7의 분산에서 요인 1(돌봄행동)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SMC값이 너무 작으면 그 측정변인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Lee, 2000). 또한 Kim(2016)은 만약 작은 경로계수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당 측정변인이 다른 요인을 동시에 측정하거나 다른 요인만을 측정하도록 수정을 시도하거나, 추가적인 요인을 측정할 의도가 없을 경우 문제의 측정변인은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다. 따라서 측정변인 문항7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측정변인은 한 개의 잠재변인만을 측정하도록 모형을 설정하였으므로 문항 7이 다른 요인을 측정하도록 문항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문항 7은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요인 ‘타인돌봄 행동’에 적재된 결과이므로 다른 요인으로 이동하지 않고 문항 7을 요인 ‘타인돌봄 행동’에서 제외하고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5요인 34문항에 대한 척도 모형의 적합도 결과를 <Table 9>에 제시하였다.  $\chi^2$ 의 통계량은  $\chi^2=1443.54(df=517, p<.001)$ 로 나타났다.  $\chi^2$ 분포와 자유도(df)의 비율은 2.79로,  $\chi^2/df$ 값이 3이하인 경우 비교적 잘 맞는 적합도로 해석할 수 있다(Kline, 2013). TLI 값은 .86, CFI 값은 .87로 좋은 모형적합도 판단 기준인 .90에는 여전히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able 9. Goodness of Fit Indices

N=440

	$\chi^2$	df	$\chi^2/df$	p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SRMR
적합도	1443.54	517	2.79	.000	.86	.87	.06 (.06-.07)	.05
기준	-	-	< 3.0	-	≥ .90	≥ .90	≤ .08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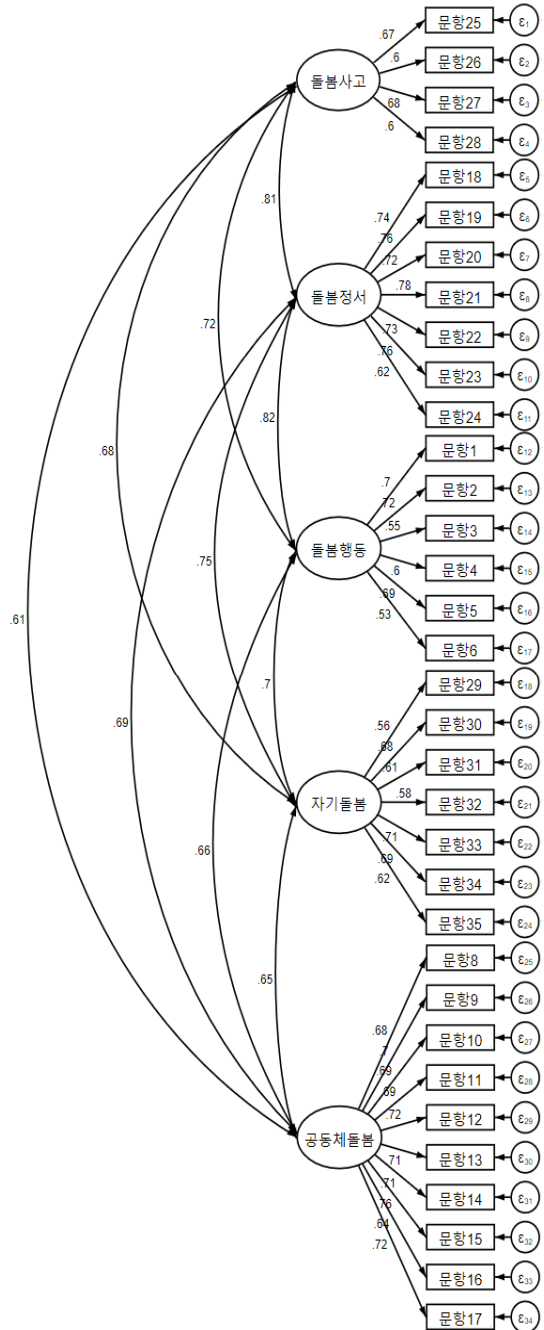
RMSEA 값은 .64(90% 신뢰구간 .60-.68)로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SRMR 값은 .05로 나타나 기준 .10보다 작은 값을 가지므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의 돌봄역량 척도의 34개 문항 5요인 모형은 적합도가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가설모형이 검증되었으며 구성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본 척도의 측정모형 결과는 <Figure 2>에 제시하였다.

### 3)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준거관련 타당도로 기존 척도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의 돌봄역량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들과 Kim 외(2014)의 성인용 배려척도와의 상관계수를 분석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Table 10).

청소년의 돌봄역량 5개 하위요인과 배려역량 척도와의 상관분석 결과, 상관계수( $r=.57\sim r=.7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공인타당도가 확보되었다( $p<.001$ ). 배려역량 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청소년 돌봄역량의 하위요인은 ‘타인돌봄 정서’로 나타났다( $r=.71$ ). 청소년의 돌봄역량 5개 하위요인과 배려척도의 각 하위요인과의 상관분석 결과도 상관계수( $r=.35\sim r=.70$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청소년 돌봄역량의 공동체돌봄 요인과 배려척도의 ‘배움’의 상관계수( $r=.70$ )가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개발된 청소년 돌봄역량 측정도구의 하위요인과 연관성을 확인하여 본 측정도구의 구인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므로 기존 배려척도와의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의 돌봄역량의 구인들이 기존의 배려 특성을 포함하며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청소년 돌봄역량의 하위요인으로서 다른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나 모두 돌봄역량을 대표하고 있는 새로운 돌봄역량 측정도구임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청소년의 돌봄역량 측정도구는 총 34문항으로 <Table 11>과 같다.

Figure 2.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of Care Competence for Adolescent





**Table 10.**  
Results for Criterion Validity

N=440

변인	돌봄역량 척도*					M	SD
	1	2	3	4	5		
공감	.48***	.64***	.60***	.64***	.53***	3.88	.73
배움	.48***	.62***	.57***	.52***	.70***	3.65	.83
비지시적 태도	.35***	.40***	.35***	.41***	.46***	3.42	.61
관계능력	.51***	.61***	.50***	.52***	.50***	3.71	.83
책임	.47***	.54***	.50***	.53***	.52***	3.78	.73
존경	.39***	.53***	.50***	.62***	.50***	3.73	.74
인격	.35***	.48***	.38***	.52***	.51***	3.59	.76
배려역량 척도	.57***	.71***	.63***	.69***	.69***	3.65	.55

\*\*\*p<.001

Note.\* 1.타인돌봄 사고, 2.타인 돌봄정서, 3.타인 돌봄행동, 4.자기돌봄 5.공동체돌봄

**Table 11.**  
The Scale of Care Competence for Adolescent

요인 (문항 수)	번호	문항
타인돌봄 사고 (4)	1	나는 친구가 내게 화를 낼 때 왜 화를 내는지 생각해 본다.
	2	나는 어른이 나를 꾸중하실 때 왜 꾸중하시는지 생각해 본다.
	3	나는 친구와 싸우고 난 뒤에 친구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본다.
	4	나는 다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타인돌봄 정서 (7)	5	나는 친구가 슬퍼하고 있으면 위로해준다.
	6	나는 친구가 우울해 보이면 걱정이 된다.
	7	나는 내 친구에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내 기분도 나쁘고 속상하다.
	8	나는 아픈 친구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9	나는 친구가 칭찬받을 때 함께 기뻐한다.
타인돌봄 행동 (6)	10	나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관심을 갖는다.
	11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의 생각을 존중한다.
	12	나는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13	나는 모둠 활동에서 어려워서 잘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15	나는 모둠 활동에서 맡은 부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낸다.
자기돌봄 (7)	16	나는 친구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접 도와준다. (예: 가방 들어주기, 특별실 이동)
	17	나는 가족 구성원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직접 보살핀다. (예: 식사도움, 옷갈아입기, 씻기 등)
	18	나는 친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한다.
	19	나는 내가 걱정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
	20	나는 어려운 문제는 혼자보다 친구들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21	나는 폭력 피해에 노출된다면 친구 또는 선생님 또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22	나는 내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23	나는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알게 된다.
	24	나는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able 11.  
Continued

요인 (문항 수)	번호	문항
공동체 돌봄 (10)	25	나는 우리지역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캠페인참여, 서명운동, 청소 등)을 실천한다.
	26	나는 동아리나 청소년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27	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
	28	나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금을 모금한다면 참여하고 싶다.
	29	나는 학교나 학급문제를 해결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0	나는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1	나는 평소 우리지역이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32	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33	나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4	나는 나에게 직접 도움이 되지 않아도 올바른 일이라면 용기내서 행동으로 옮긴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돌봄역량을 개념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돌봄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돌봄의 개념, 역량의 개념을 파악하여 돌봄의 대상은 자기, 타인, 공동체로 도출하였으며 역량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특징을 모두 갖춘 총체성의 특징을 갖는 실천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의 돌봄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측정도구 개발은 문항개발, 측정모형수립, 측정모형검증, 모형확정의 4단계로 진행되었다. 청소년 돌봄역량의 측정모형은 가정교과 현장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과 추출된 문항에 대한 청소년의 응답 자료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함으로써 수립되었다. 청소년의 돌봄역량 측정모형의 신뢰도는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 분석, 모형의 전체 신뢰도 분석을 통해 검증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 공인타당도 분석을 통해 청소년 돌봄역량의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돌봄역량 구성요인과 문항은 ‘타인돌봄 사고’ 4문항, ‘타인돌봄 정서’ 7문항, ‘타인돌봄 행동’ 7문항, ‘자기돌봄’ 7문항, ‘공동체돌봄’ 10문항으로 총 5개 요인의 34문항으로 구성된다. 청소년의 돌봄역량 측정도구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돌봄역량은 인지적, 행동적, 정의적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Held와 Tronto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돌봄역량은 정의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기돌봄’과 ‘공동체돌봄’ 요인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문항들이 골고루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타인돌봄 사고’ 요인을 통해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황과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배려적 사고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즉 내가 현재 돌봄을 실천해야 하는 상황인지, 어떤 행동이 적절한 행동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인돌봄 사고’로서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관계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타인돌봄 행동’ 요인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 행동을 보여준다. 돌봄은 노동적, 관계적, 가치적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는데 청소년의 돌봄역량을 구성하는 요인 ‘타인돌봄 행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돌봄이 갖는 노동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돌봄역량의 돌봄 대상은 자기와 친밀한 타인을 넘어 공동체까지 구성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공동체돌봄’ 요인은 청소년의 돌봄역량이 자신과 친구, 가족을 넘어 주변의 이웃과 공동체, 환경과도 건강한 관계 형성 능력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친구와의 우정이 돌봄역량을 키우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주제임을 확인하였다. Noddings(2013)는 Aristoteles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정’은 돌봄교육을 통해 돌봄역량을 증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타인돌봄 정서’ 요인을 통해 가정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또래관계에 관한

내용이 더욱 강조·정교화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또한, 관계적 정서를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 주제 선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청소년의 돌봄역량을 구성하는 5요인과 Ko(2004)의 연구에서 제안한 돌봄교육의 방향(관계적 사고양식의 함양, 자기 돌봄을 위한 교육, 돌봄과 관련된 정서적인 습관의 형성, 돌봄 기술 및 방법적 지식의 함양)이 일치하는 것을 통해 돌봄역량은 ‘관계’와 ‘실천’의 개념을 내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역량에서 돌봄의 대상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관계’하는 자기, 타인, 공동체로 구성되며, 대상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으로 구성된 ‘실천’능력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즉, 돌봄역량은 자기, 타인, 공동체와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지식, 정의, 행동적 영역이 모두 포함된 실천으로 볼 수 있다. Kwon(2017)은 인간관계의 질은 관계를 이루는 대상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대상 간의 상호작용이란 대인지각, 대인사고, 대인감정, 대인행동의 요소들이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상호작용의 요소들은 돌봄역량을 구성하는 요인들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처럼 돌봄역량은 관계형성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타인돌봄역량은 자기돌봄과 공동체돌봄에 비하여 인지적(돌봄사고), 정서적(돌봄정서), 행동적(돌봄행동) 영역으로 분할되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법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하는 청소년기에 돌봄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1차 본조사 실시 문항에서 ‘나는 나의 성격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다’ 등 자신에 대한 파악, 자기이해에 기반한 문항들은 ‘자기돌봄’요인으로 추출되지 않았다. 대신 이론적 고찰의 관계적 자기에서 추출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통해 자신을 인지하는 문항(‘나는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알게 된다’, ‘나는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들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돌봄역량은 Noddings가 설명한 ‘관계적 자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아의 발달은 개인의 인지적, 신체적 발달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타인

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였다(Noddings, 2002). 자아(정체성)의 발달에 있어 타인과의 관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자기돌봄’ 요인을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돌봄역량 척도는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며 친구, 가족 등 가까운 타인부터 청소년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 지역사회를 넘어 멀리 떨어져 있는 익명화된 타자, 환경 등 더 넓은 수준까지 관심을 가지고 돌봄을 실천하는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돌봄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으로서 돌봄역량을 개념화하고 검사도구를 개발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청소년의 돌봄역량 측정도구 개발의 초기 연구로서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 사례 축적이 요구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문 온라인 조사 업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만15세 미만의 중학생은 표집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행된 연구이다.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은 연구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돌봄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명 설정을 위해 몇 차의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을 포함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모든 청소년을 아우르는 수정된 돌봄역량의 측정도구가 개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초등학교생이나 성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청소년기의 돌봄역량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찾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돌봄역량을 키우는 교육에서의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돌봄역량을 강화하는 가정과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돌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돌봄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

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정교과에서도 돌봄역량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좋은 삶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돌봄역량이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 Acknowledgement

2023 춘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에서 요인명 설정에 관계고견을 주신 토론자와 유익한 심사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 참고문헌

- Baek, M. K. (2015).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home economics teaching · learning process plan for the practice of caring and shar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Cho, G.-P., & Ju, H. J. (2013). A study of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ing test for juvenile. *The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9(3), 185-204.
- Coates, C. (2002). The evolution of measuring caring: Moving toward construct validity, In J. Watson (Ed.), *Assessing and measuring caring in nursing and health science* (pp. 215-241).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Engster, D. (2017). *돌봄: 정의의 심장-돌봄윤리와 정치이론* [*The heart of justice: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H.-K. Kim & S. Na, Trans.). Seoul: Parkyeong-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7)
- Gilligan, C. (1997). *다른 목소리로* [*In a different voice*]. (R.-J. Herr, Trans.). Gyeonggi: Dongnyok. (Original work published 1982)
- Graham, H. (1995). Diversity, inequality and official data: Some problems of method and measurement in Britain.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3(1), 9-18.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4). *Multivariate data analysis*. Pearson Education.
- Held, V. (2017). *돌봄: 돌봄윤리-개인적, 정치적, 지구적* [*The ethics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H.-K. Kim & S. Na, Trans.). Seoul: Parkyeong-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6)
- Joseph, S., Becker, S., Becker, F., & Regel, S. (2009). Assessment of caring and its effects in young people: Development of th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aring activities checklist (MACA-YC18) and the positive and negative outcomes of caring questionnaire (PANOC-YC20) for young carer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5(4), 510-520. <https://doi.org/10.1111/j.1365-2214.2009.00959.x>
- Kam, S. W. (2014).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in evaluating care practices of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C. H.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emotion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Kim, J. L., & Yang, O. S. (2016). Development of a caring behaviors scale for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0(3), 135-164.
- Kim, S. D. (2005). *배려의 교육* [*Care education*]. Seoul: Jangseowon.
- Kim, S. D., Ahn, J. J., & Lee, J. Y.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aring scale items. *Journal of Social Science*, 25(1), 81-104. <https://doi.org/10.16881/jss.2014.01.25.1.81>
- Kim, S.-Y. (2005). *Middle school students' sense of consideration: Factor structure and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ang won National University, Gyeongnam, Korea.

- Kim, S. Y.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Fundamentals and extens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Hakjisa.
- Kittay, E. F. (2016). *돌봄: 사랑의 노동, 여성, 평등, 그리고 의존에 관한 에세이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H.-K. Kim & S. Na, Trans.). Seoul: Parkyeong-sa. (Original work published 2013)
- Kline, R. B. (2013).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 Y. Petscher & C. Schatsschneider (Eds.), *Applied quantitative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NY: Routledge.
- Ko, M.-S. (2004). An ethic of caring and education of caring.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0(2), 37-62.
- Kong, B.-H. (2017). *돌봄의 철학과 미학적 실천 [Philosophy and aesthetic practice of car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and Cultural Center.
- Lee, C. H. (2007). *A study to enhance young children's caring thinking through the community of philosophical inqui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J. (2008). A feminine ethical approach for building school community with caring.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 20(1), 141-168.
- Lee, S. M. (2000). *요인분석의 기초 [Factor analysis]*. Gyeonggi: Kyoyookgwahaksa.
- Lee, Y. S. (2020). The development of the scale of self-caring(SSC)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Ethics Education*, 58, 61-86. <https://doi.org/10.18850/JEES.2020.58.03>
- Lee, Y. S., & Kim, S. H. (2009). Development of a care scal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4), 2479-2493. <https://doi.org/10.15703/kjc.10.4.200912.2479>
- Lee, Y. S., & Yoo, S. J. (2014a). An analysis on the elements of activating happiness education suggested by noddings reflected in the home economics part of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 volume 1 of 2009 curriculum revis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1), 31-53.
- Lee, Y. S., & Yoo, S. J. (2014b). An analysis on the elements of activating happiness education suggested by noddings reflected in the home economics part of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 volume 2 of 2009 curriculum revis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3), 91-112.
- Lim, J. -Y. (2012). *A study of nel noddings' view of caring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Lim, M. (2016). *Analysis of the type of linkage between out-of-school and within-school care and awareness levels of the concerned peop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Lipman, M. (2003). *Thinking in education*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yeroff, M. (1990). *On caring*. Harper Collins. (Original work published 1971)
- Moon, M. K., Kwon, S. H., & Shim, Y. S. (2021). The conceptualization of physical education psychological competency in middle school(PEPC-MS) and the development of scal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6(3), 127-143. <https://doi.org/10.15831/JKSSPE.2021.26.3.127>
- Ministry of Education (2021). *개정 교육과정 「국민참여 설문」 결과 발표 및 사회적 협의 시작 [Announcement of the results of the revised curriculum National 「Participation Survey」 and the start of social consultation]*. <https://blog.naver.com/moeblog/222406099932>
- Noddings, N. (2002). *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s an alternative approach to education* (2nd ed.). Teachers College Press.
- Noddings, N. (2003). *Happiness and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Noddings, N. (2013).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 moral education* (2nd 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4)
- OECD (2018).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Learning Compass 2030」 A series of concept notes*.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teaching-and-learning/learning/all-concept-notes/>
- Paik, N., & Ohn, J. (2018). *Understanding and designing competency-based curriculum*. Seoul: Kyoyookacademy.
- Park, B. C. (1999). *Moral educational approaches to an ethic of ca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D. S. (2006). *Scale*. Gyeonggi: Kyoyookgwahaksa.

- Park, E. H. (2011).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caring thinking scale for you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er, R. K., & Dittmann, L. L. (1971). *Staff training* (Vol. 5).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Spencer & Spencer (1998). *핵심역량모델의 개발과 활용 [Competence at work: Model for superior performance]*. (B. M. Min, D. G. Park, J. K. Park & J. C. Jung, Trans.). Seoul: PSI consult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93)
- Tak, J. (2021). *Psychological testing* (2nd ed.). Seoul: Hakjisa.
- Tronto, J., & Fisher, B. (1990). Toward a feminist theory of caring. In E. Abel & M. Nelson (Eds.), *Circles of care* (pp. 36-54). SUNY Press.
- Tronto, J. (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Psychology Press.
- Tronto, J. (2014). *돌봄 민주주의의 시장, 평등, 정의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H. Kim & S. Na, Trans.). Seoul: Aporia. (Original work published 2013)
- Wang, J., & Wang, X. (201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using Mplus*. Wiley.
- Wang, S.-S., & Kim, S. (2011). The character educa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focus on gratitude and caring.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7(1), 117-142. <https://doi.org/10.17055/jpaer.2011.17.1.117>
- Wang, S.-S. (2016).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ed with the future social change: Focusing on the new recognition of the characteristic as the subjects for life and happines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8(3), 17-32. <https://doi.org/10.19031/jkheea.2016.09.28.3.17>
- Yu, I.-Y. (2019).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Healthy couple relationships' curriculum in high school home economics -Based on backward desig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돌봄역량을 개념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돌봄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가정과교육에서 돌봄역량 교육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과 선행연구 고찰, 전문가를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돌봄’, ‘역량교육’과 관련한 문헌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돌봄의 개념, 역량의 개념을 파악하였다. 돌봄의 대상은 자기, 타인, 공동체로 도출하였으며 역량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특징을 모두 갖춘 총체성의 특징을 갖는 실천으로 구조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의 돌봄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측정도구 개발은 문항개발, 측정모형수립, 측정모형검증, 모형확정의 4단계로 진행되었다. 청소년 돌봄역량의 측정모형은 가정교과 현장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과 추출된 문항에 대한 청소년의 응답 자료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함으로써 수립되었다. 청소년의 돌봄역량 측정모형의 신뢰도는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 분석, 모형의 전체 신뢰도 분석을 통해 검증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 공인타당도 분석을 통해 청소년 돌봄역량의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청소년의 돌봄역량 구성요인과 문항은 ‘타인돌봄 사고’ 4문항, ‘타인돌봄 정서’ 7문항, ‘타인돌봄 행동’ 7문항, ‘자기돌봄’ 7문항, ‘공동체돌봄’ 10문항으로 총 5개 요인의 34문항으로 구성된다.

■논문접수일자: 2023년 6월 20일, 논문심사일자: 2023년 6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7월 3일